

# 심화되는 갈등과 차별, 넘쳐나는 사랑과 정

지금 남조선에서 《젠더갈등》(남녀갈등)이란 말이 유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인터넷에서 흥미분위로 서로를 비방하는것으로 그쳤던 남녀간의 갈등이 오늘날에는 대학과 기업, 체육과 문화계 지어 정계 등 사회 각계로 확대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도교을립피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여자활쏘기선수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하여 남심들이 그 선수를 《남성혐오주의자》로 몰아내고 선물을 그들대로 부당한 성차별행위라고 반발해나섰다. 그것을 보니 남조선사회에

참으로 갈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갈등, 리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사회갈등, 경제갈등... 나중엔 이웃들간 소음때문에 다투는 증간소음갈등도 있다. 하다면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 20, 30대 청년들은 가혹한 생존경쟁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 취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각종 차별속에서 성장해나다니 소용과 협력, 남에 대한 배려보다 극단한 개인주의 성질을 추구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인터넷사이드들에 만연하는 남녀차별과

혐오사상을 수시로 접하고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분야에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차례지니것을 보면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가중시키고있다. 하여 남녀청년들이 《한남충》(남조선남자들은 별과 같다는 뜻), 《김치녀》(남자에게 기생하는 여자), 《메미니스》(남성우월주의자), 《마초》(남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서로 헐뜯는 못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에 나서거나 하면 살인, 성폭력 등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고 한다. 국도의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남조선사회에 대한 환멸이 커갈수록,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 밑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이 더욱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보아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는 마음이 차고넘친다. 평양시의학대학에 다니는



평양시의학대학에 다니는 18살 남 처녀대학생 박우인 (가운데)

18살 남 처녀대학생 박우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않은병으로 바깥출입을 못하던 그였다. 《어서 업혀라. 학교에 가자.》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우인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한 녀교원의 정겨운 목소리였다. 그때부터 세상마을에서 소학교로 뺀은 소로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우인이를 업은 녀교원의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그가 바로 형제산구역 제산소학교 함옥숙교원이었다. 우인에게 열정을 주는 법으로부터 우리 글짓기와 생체이동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의 성적이 오를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던 녀교원, 수업휴식시간이면 그의 다리를 자기 무릎위에 올려놓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영양식품도 성의껏 만들어주곤 하였다. 수년세월 한 학생을 위해

# 처녀대학생의 수기

사람들 누구나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정답이 부르는 이 땅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아름답고 따뜻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평양천기기술평학대의 석회학생이 쓴 수기를 통하여 찾게 된다.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내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몇몇전에는 아버지마저 잃고보니 복받치는 슬픔을 누를길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의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내가 살고있는 평천구역민원회 일꾼들은 경제에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친부모의 정으로 나의 학습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우리 성화를 잘 배워달라고, 이것은 성화의 학부형으로서 하는 부모타락없는 절절한 당부를 남겼다가 하면 내가 대학입학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던 때에는 밤늦도록 학습지도도 해주고 대학에 입

학을 때에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준 구역민원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아저씨, 그들을 나는 위원장아버지, 부위원장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그래그래, 너의 고운 얼굴에서 시름을 가세우는 아버지가 되어주마.》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을 때 나를 꼭 껴안고 속삭이던 구역민원위원회 일꾼들의 목소리가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공부도 잘 배우주고 맛나는 음식이 생겨도 나에게 먼저 안겨주던 고급중학교 선생님, 설명절과 명절날마다 나를 자주 찾아오곤 하는 동사무소 일꾼들, 우리 집을 위해 큰일, 작은 일 도맡아 나서는 다정한 이웃들... 꼭 친어머니, 친아버지같은 그들 모두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하나같았다.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라.》 두해전 어느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나는 뜻밖에도 담임교원으로부러 평천구역

인산2동 80인민반 5층 3호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도 모르고 그곳을 찾아가니 정갈한 방 안에서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할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것이 아닌가. 《글세 구역민원회 일꾼들이... 이렇게 새 집을 멋들어지게 꾸려주고 이사집까지 달라주었구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머니의 목메인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가에는 걱정과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은 함께 살던 할머니도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친부모에 비길수 없는 따뜻한 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여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많고많은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고 모두가 한가정, 친형제모 사는 화목한 대가정, 서로 돕고 위하는 따뜻한 사랑이 꽃기처럼 흐르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나는 뜻밖에도 담임교원으로부러 평천구역

대업을 단 몇해사이에 빛나게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하여 대국들이 조선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가 종식되고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되었다. 공제무대에서 자기 의사와 요구를 당당히 실현해나가고 자주와 정의, 평화수호의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대외적지위에서 일어난 비약적인 상승변화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다. 공화국인민은 강위력한 군력에 사회주의의 전진발전도, 승리와 있다는 신념을 안고 굴함없는 투쟁을 벌여 기존상상으로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민족사적



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중요한 가을을 맞이한 조국의 전야

공화국의 전야가 밝고있다.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자신들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한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후조건과 어려움을 초월하여 올해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업성의 한 일꾼은 《은나라의 강력한 지원밑에 모든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알곡풍산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오는 작황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그대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가 마는 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평안북도 룡천군, 염주군, 신의주의 일꾼들과 강원도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열의밑에 벼가을걷이전까지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다. 룡천군에서는 자기 군의 농사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관철밑에 칠알당 질량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비베관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하도록 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석화, 토성형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도 가을걷이와 낱알탈기를 제때에 해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논비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이에 맞게 도농협력연구소를에서도 가을걷이전까지 알곡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있다. 본시기자 한일혁

한편 각지의 농촌들에서 장병이름을 익는 족족 거두어들이기 위해 장병이름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언백별, 제병별의 농업근로자들은 낱알별, 포진별로 가을걷이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며 기초적으로 작업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서해지역의 농촌들에서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땀 흘려 가꾼 곡식을 한알도 허실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임수 있게 노력과 기계수단보장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시기자 한일혁



농업성의 한 일꾼은 《은나라의 강력한 지원밑에 모든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알곡풍산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오는 작황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그대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가 마는 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평안북도 룡천군, 염주군, 신의주의 일꾼들과 강원도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열의밑에 벼가을걷이전까지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다. 룡천군에서는 자기 군의 농사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관철밑에 칠알당 질량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꽃을 사랑하며 소중히 키워왔다.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정서생활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화초가꾸기이다. 꽃은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풍만한 정서를 안겨준다.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키우며 널리 보급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속에 가정들에서도 갖가지 화초를 심어 풍만하면서도 정서적인 생활을 마련하고있다. 꽃집으로 널리 알려진 대성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꽃속에, 록속에서 사는 가정

이재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트락 마을사람들 누구나 《꽃집》이라고 부르는 리진호가정을 찾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당장에 출장미팅같이 우거진 고산동 47인민반의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들어서면 각자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진 풍치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들, 봄이면 꽃을 파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거리는 과일나무들, 사계절 관상효과를 주는 단풍나무분재...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자연미가 나뉘형상한 울바자며 바닥에 짙색블록에도 집주인의 정성이 깃들여있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여기에 금잉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과 인공폭포까지 있어 집트락이리보다 잘 꾸려진 정원을 발견해냈다. 기자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크지 않은 트락을 둘러 보았다.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

구역 고산동에서 살고있는 리진호의 가정에서는 수백그루의 식물들을 가꾸고있는데 이것은 온 가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본시기자 한일혁



리진호의 아버지도 식물을 남달리 사랑했다고 한다. 원림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공장에도 심고 집안에도 많이 심어 그윽한 꽃향이 차 넘치게 했다라는것이였다. 수십년전에 아버지가 심었다는 나무의 가지다듬기를 해주면서 그는 나무를 심는 다음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지다듬기를 해주면 나무의 개체적인 미가 더 잘 살아날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당장 가지치를 친 장자미들도 10여년세월 정성들어 모양을 가꾸어 줄어 오물처럼 활짝 핀 장미꽃풍경을 펼쳐졌다고 한다. 하나의 식물을 심고 자래워도 색깔과 모양에 있어서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게 가꾸는 것이 그의 식물가꾸기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었다.

분재에 심은 다음 조형에 슬적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나무나 식물처럼 느껴지도록 자래우는것이 분재이다. 분재는 판상적가치가 클뿐 아니라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로 우아하고 청신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판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서부터 절로 힘이 샘순간 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먹은 소나무를 떠다 화분에서 자래우면 몇해사이에 얼마든지 소나무분재를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이다.》 그사이론 노력끝에 그가 터득한 원림기술과 분재가꾸기 경험은 원림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고 한다. 그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께 예쁘게 키운 꽃도 스스로 담담이 안겨주곤 화초가꾸

는 방법도 성의껏 가르쳐주곤 한다. 그것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의 화목과 단합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그가 살고있는 고산동의 어느 가정에서나 경정적으로 화초를 가꾸고 너도나도 떨쳐나 자기 사는 집과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나날 고산동은 한쪽의 그림처럼 새롭게 변모되고 시적인 꾸러미 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화초를 사랑한다는것은 아름다운 지향한다는것을 말하며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은 곧 자기자신을 문화정서적으로 수양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 《꽃을 떠난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꽃을 가꾸기보다 꽃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서 꽃과 나무가 잘 자라는것을 볼 때면 힘이 솟고 꽃처럼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갈 결심이 굳어진다.》 그런 마음들이 흐르는 가정의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생기발랄하다는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리진호는 말한다. 《형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향토애, 조국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가겠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이 자랑금이 되어서인가 활짝 피어 웃는 집들안의 꽃송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이렇듯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화초가꾸기와 더불어 애국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차 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본시기자 록흥식



산림연구원 분재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리진호의 가정에는 많은 분재들이 있었다. 결국 분재가꾸기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일러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계속되고있는 셈이었다. 그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분재가꾸기와 관련하여 모르는것이 없는 박식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